

2002년 12월 17일

---

## 기자회견문 - 낡은 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치시대 개막

### ▶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시대 선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낡은 정치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개막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낡은 정치, 20세기 정치, 3김식 보스정치, 패권주의와 지역주의 정치, 대립과 분열의 정치, 부패정치는 종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깨끗한 정치, 전혀 새로운 21세기 정치의 서막이 열릴 것입니다.

### ▶ 낡은 정치, 과거 정치와의 단절

저는 당선과 동시에 낡은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개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 전면적인 환골탈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가 끝나면 당원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새 정치를 주도할 정치세력의 정비를 제안함으로써, 본격적인 정치개혁과 민주당 개혁에 착수할 것입니다.

취임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의 문호를 전면 개방하겠습니다.

새 정치와 뜻을 함께 하는 젊고 유능하며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들을 적극 영입해서 당의 면모를 일신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전국통합정당을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 인사들도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권위주의정치의 행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국정 운영과 쇄신에 장애를 가져왔던 사람들, 부패와 관련 있는 사람들, 실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들이 새 정부의 국정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원칙

저는 국민경선, 후보단일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힘으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서면 이것은 국민이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진정한 '국민참여의 시대'를 여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항상 대화하고 주요 국정 현안을 국민과 의논해서 풀어나가는 국민 참여형 국정운영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과 대화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또 국민통합형 국정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아 상호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연고주의·정실주의·지역주의를 타파하겠습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모든 인재들에게 능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인사대혁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널리 인재를 모아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일체의 비선정치·측근정치는 배제될 것입니다.

특정인이 국정운영에 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전횡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법에 따라 허용된 권한 이상의 개인적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공을 세웠다 하여 국정의 책임 있는 자리를 나누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 12월 19일, 낯은정치 청산과 한국정치의 새시대를 여는 날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낯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시대, 새 정치를 이끌어갈 21세기 첫 대통령으로  
저를 밀어주십시오.

새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12월 19일을 낯은 정치 청산의 날, 새로운 한국정치가 탄생하는 날,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범하는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 주실 것을 호  
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17일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노 무 현